

대학교 라카이브(Larchive) 인식 조사 및 실무 운영 방안*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University Larchive and its Practical Operation Plans

박도원(Park, Do-Won)** · 오효정(Oh, Hyo-Jung)***

1.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선행 연구
2. 라카이브 인식 조사 프로세스 설계
 - 1) 연구 프로세스 설계
 - 2) 인식 조사 대상 설정
3. 라카이브 인식 조사 결과 및 분석
 - 1) 인식 조사 결과
 - 2) 조사 결과 분석
4. 라카이브 운영을 위한 실무자 FGI
 - 1) 응답 키워드 분석
 - 2) FGI 결과 분석
5. 라카이브 형태의 조직 협력을 위한 운영 방안
6.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NRF-2021R1 I1A3047435).

**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kumsan1000@gmail.com)(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공동연구원(ohj@jbnu.ac.kr)(교신저자).

■ 투고일: 2023년 06월 29일 ■ 최초심사일: 2023년 07월 02일 ■ 최종확정일: 2023년 07월 20일

■ 기록학연구 77, 151-187, 2023, <https://doi.org/10.20923/kjas.2023.77.151>

〈초록〉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은 한정된 운영 공간을 활용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라카이브(Larchive)는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모델 중 하나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라카이비움(Larchiveum), 즉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통합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관이나 그 전 단계에서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대학 기록관과 도서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라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을 위한 보다 실무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라카이브’라는 개념 자체는 기록관과 도서관 담당자에게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았으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양 조직에 적합한 업무 협력 형태로서 ‘라카이브’가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고, ‘라카이브 인식조사’를 통해 물적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업무상 협력의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라카이브 형태의 협력을 위해서는 공간 협력과 예산 확보, 인력 문제 등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라카이브 형태의 조직 협력을 위해 ‘교수·학습 지원’, ‘연구지원 서비스’, ‘큐레이션 서비스’, ‘교사 자료 수집 및 관리’, ‘평가 협조’의 관점에서의 라카이브 실무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라카이브(Larchive), 기록관, 도서관, 협력, 운영

〈Abstract〉

The cooperation between archives and libraries i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limited operational space and the improvement of work efficiency. “Larchive” is one of the model of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and archives, so it can be an alternative plan for institutions

that face difficulties in collaborating through “Larchiveum” - growing model of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This study presents the recognition of Larchive to university archivists and librarians, and suggests a practical operation plan for cooperation between the archive and library. As a result, “Larchive” was relatively less aware of archivists and librarians, but in the practical point of view, respondents were fully aware of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archives and libraries. In particular, Larchive was presented as a rational alternative model for both of the groups. And the need for material cooperation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recognition survey,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business cooperation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FGI. Some prerequisites are proposed such as securing a collaborative workplace, assignment of budget and manpower. Through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practical operational plans for organizational cooperation in the form of Larchive, focusing on the perspectives of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research support services”, “curation services”,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history data”, “cooperation for evaluation”, and drew discussion points.

Keywords : Larchive, Archive, Library, Cooperation, Management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대학교의 다양한 부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협력’이란 부서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 담당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반을 논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 같은 맥락에

서 대학 기록관은 다른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라키비움(Larchiveum)’이 있다. 최영실(2012)에 의하면 라키비움(Larchiveum)은 메간 윈젯(Megan Winget)이 2008년에 최초로 제안한 모형으로서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이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라키비움은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한정된 운영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김민정, 이성신(2014)의 연구 중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업무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기록관과 도서관의 자료 유형은 박물관의 자료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유사하고 실무자의 관점에서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협력’보다 현실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라키비움과 같이 다수의 기관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관과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수행 과정이 유사하다. 따라서 기록관과 도서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업무의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최근 많은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는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산출된 연구 노트, 연구결과 보고서와 같은 장서 형태의 자료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연구 자료를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록관은 기관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교사 자료를 관리하며, 도서관은 구성원이 생산한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등을 수집하여 관리한다. 특히 해당 대학만의 특화 분야 자료를 별도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경우, 연구 자료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심층적인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즉 ‘대학 기관만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대학 기록관과 도서관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조직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라카이브(Larchive)’가 제안되었다(노경국, 2018).

본 연구는 대학 기관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라카이브’를 중심으로 대학 실무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용가능한 실무 운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학 기관에서 ‘라키비움’보다 ‘라카이브’로서의 협력이 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서 고려하고자 함은, ‘기록관, 도서관은 박물관과의 업무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록관과 도서관이 직제상 협력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그림 2〉참고)’하는 것에 기인한다. 박물관에서 기록관과 도서관에 업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는 대개 ‘박물관의 유물을 관리하기 위해 목록화 작업 과정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와 ‘기록관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을 전시 목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러 대학의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직제 형태를 살펴보면 ‘기록관과 도서관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직제상 협력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이 각각의 전문성을 높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라키비움이 운영될 경우 하나의 직제 내 각각의 전문가가 역량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보다 ‘관련 자격 보유자가 업무를 겸직하여 실무 인력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과중될 때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전보다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조직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라카이브로서의 협력을 라키비움으로서의 협력보다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모델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라키비움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관이나 라키비움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차선책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라카이브’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나아가 실행 가능한 실무적 관점의 라카이브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연구 주제에 따라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와 ‘라키비움’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 ‘라카이브’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과 관련하여 서혜란(2005)은 기록유산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영(2012)은 기록관의 보존·관리의 업무와 함께 정보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도서관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위의 연구를 통해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은 ‘보존’과 ‘서비스’의 측면에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라키비움’과 관한 선행연구로 최영실(2012)은 라키비움 운영을 위한 기관 필수 업무를 정리하고, 라키비움으로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배성중, 배삼열, 김용(2014)과 장미경(2016)은 소규모·중규모 대학에 적합한 라키비움 모형을 제시했다. 강구민(2019)은 공공기관에서 처음 적용된 라키비움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위의 연구를 통해 라키비움으로서 기록관과 도서관, 박물관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공간 협력을 기반으로 인적·물적 협력이 필요하고, 실제 라키비움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라카이브’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노경국(2018)과 이민철(2022)의 연구가 있다. 노경국(2018)은 대학 기록관의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중요성과 라카이브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민철(2022)은 대학 내 조직과 사료실이 협력하기 위한 방안으

로 ‘라카이브’를 제시했다. 위의 라카이브 관련 연구는 ‘대학 기록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를 통해 라카이브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리해 보면, 기록관과 도서관이 협력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인적·물적 협력을 통한 ‘라키비움’ 형태의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반해 ‘라카이브’와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라키비움’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실제 운영 중인 기관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이 아닌 ‘공공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라키비움의 설립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라키비움’의 대학 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라키비움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학 기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라카이브의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필요성이나 운영 방안’과 관련한 면담과 설문 조사는 주로 기록물 부서 담당자와 기록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한 실무자 의견 수렴을 위해 라카이브의 상호 협력 대상인 기록관과 도서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인 라카이브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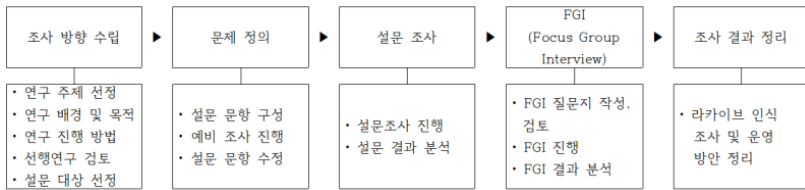
2. 라카이브 인식 조사 프로세스 설계

1) 연구 프로세스 설계

본 연구는 협력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라카이브’ 기본 개념에

대한 인식과 실무적인 운영 방안 및 향후 협력 방향성 등을 조사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유사한 목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인 국립중앙도서관(2017)에서 제시한 ‘도서관 인식 조사 프로세스’를 참고하여 라카이브 인식 조사 프로세스를 <그림 1>과 같이 설계하였다. 먼저 인식 조사 방향을 수립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대학 실무자에게 묻고자 하는 바를 정리하여 예비 조사를 진행했다.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본 설문 문지를 구성하여 라카이브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조사를 수행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라카이브 적용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의 집중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운영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1> 라카이브 인식 조사를 위한 연구 프로세스



초기 설문 문항은 안지혜(2018), 김미연, 정옥경(2017)의 설문 항목을 참고하여 5항목 18문항으로 구성했다. 설문 조사 전 총 2회의 예비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예비 조사는 ‘라카이브’와 ‘라키비움’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대학 도서관 실무자 2명을 표본 샘플링을 통해 선정하여 진행했다. 1차 예비 결과는 본 설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결과와 비슷한 경향의 응답을 보였다. 다만 본 연구가 기록관과 도서관 실무자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개념에 대한 인식 조사라는 점에서, ‘라카이브’와 ‘라키비움’ 등 사전에 설문을 통해 묻고자 하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2차 예비 조사는 기록관과 도서관의 운영 차이에 따라 설문지를 이해하는 관점을 파악하고자 2개의 대학 실무자 각 1명을 표본샘플링으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2차 조사를 통해 본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 전 ‘설문을 요청할 대학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상기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고, 총 5항목 21문항의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표 1〉참고). 모든 설문 조사는 구글 폼을 통해 진행했으며, 설문 문항이 명목 척도임을 고려하여 SPSS(ver. 29.0.1.0)를 활용하여 빈도 분석과 변수 간 교차 분석을 수행했다.

〈표 1〉 설문 문항 구성 및 내용

영역	항목	내용	문항 수
1	설문 응답자 (응답기관) 정보	1. 소속 부서 2. 신분 3. 근무 연수	3
2	기관 운영 현황	1. 소속 기관 내 기록관 운영 여부 2.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여부 3. 응답 기관의 직제상 협력 형태 4. 응답 기관의 업무상 협력 형태	4
3	라카이브 인식 조사	1. 라카이브 인식 조사 2. 라카이브 인식 조사(라카이브 인식 조사와 비교 목적 수행) 3. 현 소속 기관의 업무 형태	3
4	라카이브로서 기록관, 도서관의 업무 협력	1. 기록관, 도서관의 협력 형태 2. 업무 협력 빈도 3. 협력 목적 4. 협력의 필요성 5. 향후 협력 운영 계획 6. 라카이브 운영 시 장점 7. 라카이브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8. 라카이브로서 현 소속 기관의 발전 가능성	8
5	향후 기관 운영 방 향성	1. 설문 응답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업무 협력 형태 2. (라카이브 응답자 대상) 박물관과의 협력이 어려운 이유 3. 라카이브로서 업무 협력을 위해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	3
설문 문항 합계			21

2) 인식 조사 대상 설정

본격적인 인식 조사 설문에 앞서 2차 예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록관과 도서관을 운영하는 대학 중 '두 조직의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운영 중인 대학의 사례'를 검토하고 조사 대상 유형을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이 도서관 내 하나의 부서로서 운영되는 경우, 또는 기록관과 도서관이 하나의 조직 내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경우를 기록관과 도서관이 '직제상 협력'한다고 정의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 실무자가 기록관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혹은 기록관과 도서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력하는 경우에는 기록관과 도서관이 '업무상 협력'한다고 정의했다.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기록관과 도서관이 '협력'하여 운영 중인 대학을 선정하였다.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에서 대학 구성원의 정보 요구는 기록관과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행되고, 이는 결국 대학의 연구 실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설문 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할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레이덴 과학기술연구센터(Cent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Leiden University)에서 개발한 지표인 'CWTS Leiden Ranking'을 활용했다¹⁾. 신현대(2015)에 의하면 Leiden Ranking은 게재 논문과 논문의 피인용 수, 주제 분야별 개별 주제의 논문 피인용 수를 바탕으로 세계의 대학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특히 Web of Science에 인용된 논문의 수를 바탕으로 대학의 연구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기관의 게재 논문, 논문 피인용 수를 바탕으로 세계의 대학 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지

1) Cent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Leiden University, The Netherlands (2022). CWTS Leiden Ranking 2022. CWTS Leiden Ranking. 출처: <https://www.leidenranking.com/>

표를 통해 기록관과 도서관의 유기적인 협력 형태를 보이는 기관을 검토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라카이브를 ‘라키비움 형태의 협력 전 단계’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두는 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20개 대학 중 조직도를 중심으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을 모두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였다. 대상 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각 대학의 현재 직제상 협력 형태를 사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직제상 협력 형태 분석에 따른 기관 수



분석 대상 대학 중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형태를 보이는 기관은 총 6곳이고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협력’ 형태를 보이는 기관은 1곳이다. ‘기록관과 박물관의 협력’ 형태를 보이는 기관은 3곳이고 4개 기관은 직제상 기록관과 도서관, 박물관이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제상 협력’의 관점에서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형태가 가장 많은 협력 형태로서 확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라카이브 인식 조사 결과 및 분석

1) 인식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설문 조사는 조사 대상 대학 14개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표본 추출을 통해 설문 응답자를 선정했다. <표 2>는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한 것으로, 총 응답 인원은 45명 중 기록관 소속 응답자는 8명, 도서관 소속 응답자는 37명이다. 본 연구는 소속 기관에 따른 실무자의 의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의 신분에 따라 기록관과 도서관 소속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기록관 응답자는 11명, 도서관 응답자는 34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록관 업무를 담당하는 응답자 중 실제 소속은 도서관인 응답자도 있었고,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직제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기록관과 도서관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설문 조사 결과 분석은 <표 2>의 기준(신분별 응답자 수)을 적용했다.

<표 2> 연구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신분별 응답자 수

	소속 기준 응답자 수		응답자 수(명)
	기록관(명)	도서관(명)	
기록물관리전문요원	6	2	8
기록관실무자	2	0	2
사서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	0	1	1
기록관 계	8	3	11
사서	0	32	32
도서관실무자	0	2	2
도서관 계	0	34	34
합계	8	37	45

(2) 기관 운영 현황

‘라카이브’는 기록관과 도서관 실무자가 서로 상호 조직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기록관’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운영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록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운영되지 않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 직원이 소속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따라서 기록관의 운영은 곧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자가 소속 기관에 근무함을 의미한다.

〈표 3〉은 대상 대학 기관 실무자가 현재 소속 기관에서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소속 기관에 기록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문항은 기록관 실무자보다 도서관 실무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소속에 따른 구분 없이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 두 설문 항목의 응답을 교차분석한 결과 전체 77.8%의 응답자가 ‘소속 기관 내 기록관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전체 75.6%의 응답자는 ‘소속 기관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표 3〉 기록관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운영 관련 설문 결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유무			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기록관 유무	있다	빈도	33	2	0	35
		전체 중 %	73.3%	4.4%	0.0%	77.8%
	없다	빈도	1	5	1	7
		전체 중 %	2.2%	11.1%	2.2%	15.6%
	잘 모르겠다	빈도	0	1	2	3
		전체 중 %	0.0%	2.2%	4.4%	6.7%
전체		빈도	34	8	3	45
		전체 중 %	75.6%	17.8%	6.7%	100.0%

〈표 4〉 기관의 업무 협력 형태 설문 결과

			업무상 협력 형태					계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박물관	협력하지 않음			
기록관*	직제상 협력 형태	기록관, 도서관	빈도	0	2	0	0	1	3	
		전체 중 %	0.0%	18.2%	0.0%	0.0%	9.1%	27.3%		
		기록관, 박물관	빈도	0	0	2	0	0	2	
	전체 중 %	0.0%	0.0%	18.2%	0.0%	0.0%	18.2%			
	협력안함	빈도	1	0	1	0	4	6		
		전체 중 %	9.1%	0.0%	9.1%	0.0%	36.4%	54.5%		
기록관 계			빈도	1	2	3	0	5	11	
			전체 중 %	9.1%	18.2%	27.3%	0.0%	45.5%	100.0%	
도서관**	직제상 협력 형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빈도	5	0	0	0	1	6	
			전체 중 %	14.7%	0.0%	0.0%	0.0%	2.9%	17.6%	
		기록관, 도서관	빈도	1	6	0	0	1	8	
			전체 중 %	2.9%	17.6%	0.0%	0.0%	2.9%	23.5%	
		기록관, 박물관	빈도	0	0	0	0	1	1	
			전체 중 %	0.0%	0.0%	0.0%	0.0%	2.9%	2.9%	
	도서관, 박물관	빈도	0	0	0	1	1	2		
		전체 중 %	0.0%	0.0%	0.0%	2.9%	2.9%	5.9%		
	협력안함	빈도	2	1	0	1	13	17		
		전체 중 %	5.9%	2.9%	0.0%	2.9%	38.2%	50.0%		
	도서관 계			빈도	8	7	0	2	17	34
				전체 중 %	23.5%	20.6%	0.0%	5.9%	50.0%	100.0%
전체***	직제상 협력 형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빈도	5	0	0	0	1	6	
			전체 중 %	11.1%	0.0%	0.0%	0.0%	2.2%	13.3%	
		기록관, 도서관	빈도	1	8	0	0	2	11	
			전체 중 %	2.2%	17.8%	0.0%	0.0%	4.4%	24.4%	
		기록관, 박물관	빈도	0	0	2	0	1	3	
			전체 중 %	0.0%	0.0%	4.4%	0.0%	2.2%	6.7%	
	도서관, 박물관	빈도	0	0	0	1	1	2		
		전체 중 %	0.0%	0.0%	0.0%	2.2%	2.2%	4.4%		
	협력안함	빈도	3	1	1	1	17	23		
		전체 중 %	6.7%	2.2%	2.2%	2.2%	37.8%	51.1%		
전체 계			빈도	9	9	3	2	22	45	
			전체 중 %	20.0%	20.0%	6.7%	4.4%	48.9%	100.0%	

* p<.05, *** p<.001

두 질문에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3.3%에 해당했다. 이는 설문 응답자가 기록관의 소속 기관 운영 여부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보유자의 근무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는 기록관과 도서관, 박물관의 협력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연구에서 정의한 ‘직제상 협력’과 ‘업무상 협력’의 관점에서, 현재 대상 대학이 어떠한 형태로 기록관과 도서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했다. 먼저 ‘직제상 협력’의 관점에서, 기록관 응답자(27.3%)와 도서관 응답자(23.5%)는 주로 라카이브의 협력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조직체계 내에서는 박물관을 포함하는 ‘라키비움’의 협력 형태보다 기록관과 도서관이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업무상 협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록관 실무자는 ‘기록관과 박물관의 협력(27.3%)’과 함께 라카이브 형태의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18.2%)’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도서관 실무자는 라키비움 형태의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협력(23.5%)’을 가장 많은 협력 형태로 응답했고, 다음 순위로 라카이브 형태의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20.6%)’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응답 결과를 정리하면, 기록관과 도서관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개 라카이브와 라키비움의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직제상 협력: 라카이브 24.4% > 라키비움 13.3% / 업무상 협력: 라카이브 20.0% ≈ 라키비움 20.0%). 이를 종합해보면 직제상·업무상 라카이브 형태로 협력하는 기관(17.8%)은 라키비움의 형태로 협력하는 기관(11.1%)보다 많은 것으로, 이를 통해 라카이브 협력 형태에 관한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제상 업무 협력 형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상 협력 형태로서 라카이브의 형태가 많이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라카이브 인식 조사

〈표 5〉 ‘라카이브’ 용어와 ‘라키비움’ 용어 인식 조사 설문 결과

		라키비움 인식 조사			계
		예	아니오		
라카이브 인식 조사	예	빈도	15	3	18
		전체 중 %	33.3%	6.7%	40.0%
	아니오	빈도	14	13	27
		전체 중 %	31.1%	28.9%	60.0%
전체 계		빈도	29	16	45
		전체 중 %	64.4%	35.6%	100.0%

* p<.05

〈표 5〉는 라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표로, ‘라카이브’라는 용어를 실무자가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라카이브’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라키비움’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최근에 개념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대학 실무자가 해당 개념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해당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다. 실무자의 인식 비교를 위해 응답자에게 ‘라카이브’보다 비교적 친숙한 용어인 ‘라키비움’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0%는 ‘라카이브’에 대해 이전에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라키비움’에 대해서는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64.4%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찬가지로 ‘라카이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라키비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6.7%)보다 ‘라키비움’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라카이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31.1%)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해 실제 기록관과 도서관의 실무자에게 ‘라카이브’(40.0%)는 ‘라키비움’(64.4%)보다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이는 라카이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운영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4) 조직 간 업무 협력

〈표 6〉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빈도 및 협력 케이스 설문 결과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케이스				계
			이용자의 정보 요구1)	정보의 신속 제공2)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빈도	자주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3)	빈도	3	1	2	0	6
		전체 중 %	6.7%	2.2%	4.4%	0.0%	13.3%
	필요시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4)	빈도	10	5	2	2	19
		전체 중 %	22.2%	11.1%	4.4%	4.4%	42.2%
	거의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5)	빈도	6	0	2	12	20
		전체 중 %	13.3%	0.0%	4.4%	26.7%	44.4%
전체 계		빈도	19	6	6	14	45
		전체 중 %	42.2%	13.3%	13.3%	31.1%	100.0%

** p<.01

- 1) 교내외 이용자가 정보 요청 시 협력하는 경우
- 2) 조직 간 협력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여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을 높이는 경우
- 3) 일주일에 한 번 이상 / 4) 한 달에 한 번 이상 / 5) 한 달에 한 번 이하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표 6〉은 기록관과 도서관 실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협력을 하는지, 어떠한 경우에 협력을 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라카이브 형태의 업무 협력을 위해서는 평소에 기록관과 도서관이 협력을 하는 빈도가 높고, 협력을 수행하는 케이스가 다양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해당 설문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협력 빈도에 대한 질문에 기록관과 도서관은 ‘자주(13.3%)’ 또는 ‘필요시(42.2%)’ 업무 협력을 진행한다는 비율(약 55.5%)이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44.4%)

보다 많았다. 특히 대부분(42.2%)의 협력이 교내·외 이용자의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대학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방증한다.

〈표 7〉 라카이브 형태의 업무 협력 시 장점 설문 결과

		라카이브 운영 장점				전체 응답 수	전체 응답 인원
		보존 공간의 효율화	이용자의 정보 이용 활성화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기타 (장점이 없다 포함)		
기록관	빈도	6	5	5	2	18	11
	기록관 중 %	33.3%	27.8%	27.8%	11.1%	100.0%	24.4%
도서관	빈도	19	17	9	6	51	34
	도서관 중 %	37.3%	33.3%	17.6%	11.8%	100.0%	75.6%
전체	빈도	25	22	14	8	69	45
	전체 중 %	36.2%	31.9%	20.3%	11.6%	100.0%	100.0%

* 산출 기준: 다중 반응 교차분석(중복 응답 허용)

〈표 7〉은 라카이브의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다면 어떠한 장점이 예상되는지 실무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로, 다양한 응답을 수용하기 위해 중복 응답을 허용했다(응답 수: 69건). 기록관과 도서관의 응답자는 라카이브 형태로 조직이 운영될 때 ‘보존 공간의 효율화(36.2%)’와 ‘이용자의 정보 이용 활성화(31.9%)’를 장점으로 제시했다. 기타 의견으로 ‘중복 기록물(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할 수 있다’, ‘장점이 없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11.6%, 총 8건)이 제시되었다. 기타 응답은 크게 ‘라카이브로서 협력 시 장점’에 대한 추가 의견과 ‘라카이브 협력이 필요치 않음’에 대한 의견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설문은 ‘라카이브로서 조직을 운영할 경우’라는 가정하에 장점을 질문한 것으로, 기타 응답 중 ‘라카

이브로서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외한 의견을 수용하였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은 라카이브 형태로 대학의 기록관과 도서관이 협력하여 운영될 때 물적 협력(공간)에서의 장점이 있고, 실질적인 업무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라카이브 형태의 업무 협력 시 개선사항 설문 결과

		라카이브 개선 사항				전체 응답 수	전체 응답 인원
		자료 유형에 따른 관리 개선	공간 확보 (서고 부족 등)	업무의 운영 차이 개선	기타		
기록관	빈도	5	4	10	0	19	11
	기록관 중 %	26.3%	21.1%	52.6%	0.0%	100.0%	24.4%
도서관	빈도	16	19	26	1	62	34
	도서관 중 %	25.8%	30.6%	41.9%	1.6%	100.0%	75.6%
전체	빈도	21	23	36	1	81	45
	전체 중 %	25.9%	28.4%	44.4%	1.2%	100.0%	100.0%

* 산출 기준: 다중 반응 교차분석(중복 응답 허용)

〈표 8〉은 라카이브 형태로 협력하여 조직을 운영할 경우에 어떠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로, 〈표 7〉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실무자의 응답을 수용하기 위해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총 81개의 답변이 수렴되었다. 설문 응답자는 '업무의 운영 차이 개선(44.4%)'이 이루어져야 함을 응답했다. 기록관과 도서관은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관리하는 자료의 형태가 달라 발생하는 업무의 운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응답이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료의 유형에 따른 관리 개선(25.9%)', '공간의 확보(서고의 부족 등)(28.4%)'가 다수의 응답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

의한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업무의 운영 차이 개선’은 ‘직제상 협력’보다 ‘업무상 협력’에 가깝다. 따라서 라카이브로서 조직이 협력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두 조직의 업무가 하나의 조직 형태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협력’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라카이브로서 협력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 설문 결과

			라카이브 발전 가능성		전체
			있다	없다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필요성	필요하다	빈도	16	21	37
		전체 중 %	35.6%	46.7%	82.2%
	필요하지 않다	빈도	0	8	8
		전체 중 %	0.0%	17.8%	17.8%
전체		빈도	16	29	45
		전체 중 %	35.6%	64.4%	100.0%

* p<.05

〈표 9〉는 라카이브로서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필요성과 조직 발전 가능성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응답자 대부분은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이 필요하다(82.2%)’라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라카이브로서 기록관과 도서관이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35.6%만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향후 라카이브로서의 조직 발전 가능성은 낮다(46.7%)고 예상한 것으로, 이렇게 낮은 기대치가 나타난 원인을 〈표 7〉과 〈표 8〉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기록관과 도서관이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카이브는 분산된 서비스 주체를 하나의 조직으로서

통일하여 운영할 수 있고, 하나의 공간에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표 7〉 참고). 그러나 라카이브로서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자료의 유형 및 관리 차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표 8〉 참고)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영실(201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기록관과 도서관 실무자의 업무를 분석하여 라카이브로서 조직을 운영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협력 형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업무 개선을 위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하므로, 실무자의 관점에서 ‘라카이브로서 조직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업무상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5) 향후 기관 운영 방향성

〈표 10〉 소속 기관에 적합한 업무 형태와 라카이브 발전 가능성 설문 분석 결과

			라카이브로서 발전 가능성		전체
			있다	없다	
기관에 적합한 업무형태	라카이브	빈도	5	20	25
		전체 중 %	11.1%	44.4%	55.6%
	라키비움	빈도	11	9	20
		전체 중 %	24.4%	20.0%	44.4%
전체		빈도	16	29	45
		전체 중 %	35.6%	64.4%	100.0%

* p<.05

〈표 10〉은 설문 응답자가 생각하는 ‘소속 기관에 적합한 업무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라카이브로서 발전 가능성(〈표 9〉 참고)

와 함께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55.6%는 응답자의 기관에 적합한 업무 형태로 '라카이브'를 선택했다. '라카이브로서 조직 발전 가능성'의 응답과 '기관에 적합한 업무 형태' 응답을 비교해 보면, 약 44.4%의 응답자가 '라카이브로서 응답 기관이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관에 적합한 협력 형태는 라키비움이 아닌 라카이브다'라고 응답했음을 의미한다. <표 9>의 '라카이브로서 발전 가능성'이 낮게 제시된 이유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본 연구진이 제시한 '공간의 협력과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협력'을 지향하는 경우 '라카이브'가 기관에 적합한 업무 형태로 우선 고려될 수 있는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라카이브 응답자 대상 설문 응답 결과

N=25

설문 문항	분류	빈도	비율(%)
라카이브로서 협력하기 위해서 우선 개선되어야 할 점	공간의 효율화	4	8.9
	업무의 전문성 확보	7	15.6
	라카이브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9	20.0
	기타	5	11.1
라키비움으로서 박물관과 협력이 어려운 이유	직제 개편 필요	13	28.9
	공간 확보의 어려움	3	6.7
	박물관의 많은 소장유물 수	1	2.2
	기타	8	17.8

* 설문 문항을 교차분석한 결과, 기대도수가 5 이하인 경우가 존재하여 빈도분석 진행.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라카이브'는 라키비움의 차선책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라카이브에서 더 나아가 라키비움으로서 조직이 발전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다.

〈표 11〉은 〈표 10〉에서 라카이브 협력 형태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질문의 응답 결과이다. 먼저 라카이브 형태로 협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으로 ‘라카이브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20.0%)’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분산된 공간에서 관리하던 자료를 한 공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 본부와 논의하여 관련된 예산 편성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기록관과 도서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15.6%)과 공간 효율화(8.9%)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향후 라카이브용으로써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 박물관과의 협력이 어려운 이유로는 ‘직제 개편이 필요함(28.9%)’이 가장 큰 장애로 파악되었다. 직제 개편은 단순한 조직의 협력뿐만 아니라 업무의 수행 공간의 협력 또는 공간 조정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직제상 협력’을 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간’의 문제는 라카이브로서 협력하기 위한 개선 요건에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다시 예산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라카이브를 기관에 가장 적합한 협력 형태로 응답한 기록관과 도서관의 실무자는 ‘박물관과의 협력’은 ‘직제상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제 개편을 통해 세 조직(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이 협력하는 것보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라카이브로서 협력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조사 결과 분석

설문 조사는 ‘조직의 협력’과 ‘라카이브’에 대해 실무자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수행하였다. ‘기관 운영 현황’, ‘개념에 대한 인식 조사’, ‘라카이브로서 조직의 업무 협력’, ‘향후 조직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자의 의견을 정리하여 〈표 12〉와 같이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표 12〉 라카이브 인식 조사 결과 및 시사점

번호	설문 항목		설문 결과	시사점
1	기관 운영 현황	기록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인식 조사	• 기록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소속 기관 운영 여부 인지	• 라카이브 형태의 협력 운영 모델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 확인 가능
		기관 협력 형태	• 직제상 협력의 관점에서 다수의 라카이브의 협력 형태 확인 가능	
2	인식 조사	라카이브 인식 조사	• ‘라카이브’ 용어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음	• 라카이브 용어 정의 및 라카이브 모델 정립 필요
3	라카이브로서 조직의 업무 협력	업무 협력 경험	• 라카이브 형태의 협력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응답자는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업무 협력을 위해서는 물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협력 케이스	• 이용자 정보 요구 시 협력	
		협력 필요성	• 기록관, 도서관의 협력이 필요함	
		협력 장점	• 보존 공간의 효율화	
		협력 개선사항	• 업무의 운영 차이 개선, 공간확보	
4	조직 운영 방안	바람직한 업무 협력 형태	• 기관에 적합한 업무 형태는 ‘라카이브’	• ‘라카이브’는 기관에 적합한 업무 형태 • 라카이브는 ‘물적 협력(공간, 예산)’이 기반을 두어야 조직 협력 및 운영 가능
		라카이브로서 조직 협력을 위한 개선 방안	• 예산 확보	
		라카이브로서 박물관과의 협력 질문	• 협력이 어려운 이유 : 직제 개편 필요	

먼저 〈표 12〉 기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대다수는 해당 대학의 기록관 운영 여부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운영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관의 협력 형태와 관련하여 직제상 협력의 관점에서 다수의 라카이브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

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라카이브로서의 협력 형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라카이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라키비움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로서, ‘라키비움’보다 ‘라카이브’가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았다. 이를 통해 ‘라카이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라키비움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와 같이 라카이브 협력 모델에 대한 유형 정립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의 업무 협력 유형을 조사한 결과,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이용자의 정보 요구가 있을 때 상호 조직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록관과 도서관은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라카이브로서 협력 시 ‘보존 공간의 효율화’가 장점이지만, ‘업무의 운영 차이 개선’ 등 추가 개선 요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조직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라카이브 형태 조직 발전 가능성이 작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유추된다. 즉, 대학 실무자들은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으며 라카이브로서 업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물적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바람직한 업무 협력 형태로 ‘라카이브’를 선택한 응답자가 ‘라키비움’ 응답자보다 10% 이상 많았다. 또한 ‘라카이브’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박물관과의 협력이 어려운 이유를 수렴한 결과, ‘직제 개편’이라는 응답이 제시되었으며, 라카이브로서 협력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라카이브는 대학교라는 기관에 적합한 업무 형태로서 고려될 수 있고, ‘조직 간 업무 협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물적 협력을 기반으로 라카이브로서 협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조사는 '라카이브'가 기록관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실무자가 속한 기관의 기록관, 도서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는 향후 기록관, 도서관이 협력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적 협력(공간, 예산)'의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라카이브'로서의 발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응답을 토대로 '라카이브 운영을 위한 선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의 실무자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공간의 부족', '예산의 감소'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라카이브'로서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향후 '라키비움'으로서의 복합적인 협력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3장의 설문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발견했다. 먼저 설문 조사만으로는 라카이브를 실제 조직에 적합한 형태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당초 본 설문은 실무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도록 '기타' 선택지를 구성하고, 일부 문항의 경우 '다중응답'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부분 객관식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라카이브에 대한 한정된 응답 범주 내에서 실무자의 의견이 수렴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대학 기관에 적용 가능한 실무 라카이브 운영 방안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설문 조사의 '라카이브로서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물적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됨에 따라 실제로 라카이브 형태 혹은 그 전초로서 두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 어떠한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라카이브를 운영하기 위한 현

실적인 문제와 대안은 무엇인지 등 보다 심도 있는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4. 라카이브 운영을 위한 실무자 FGI

라카이브가 실제 조직에 적합한 형태로 운영되기 위한 현장감있는 실무자의 의견 수렴 FGI 대상 학교로 W대학교를 선정하였다. W대학교는 기록관이 도서관 소속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필요 시 업무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라카이브 형태의 협력 방안을 모색 중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직제상·업무상 협력’ 조건에 부합하였다.

〈표 13〉은 FGI 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한 것으로, W대학교 기록관은 2023년 현재 과장 직급의 실무자가 계약직 직원 1명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실무자 중 FGI 대상은 ‘동일 직급인 과장급 실무자로서 이용자 참고 봉사 등 도서관 정보서비스 경력이 많은 직원’을 선정하였다.

〈표 13〉 FGI 대상자의 일반 특성

번호	면접대상자	직급	실무경력	소속	면접방식
1	A	과장	40년 이상	기록관	대면
2	B	과장	30년 이상	도서관	대면

FGI 질문지는 ‘라카이브의 필요성과 현재의 라카이브 운영 현황 및 향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질문지는 총 9문항의 공통 질문으로, ‘동일한 질문에 대한 라카이브로서 현재 운영 중인 기관의 실무

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했다. 3장의 '라카이브 인식 조사'를 통해 '물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라카이브가 운영될 수 있다'는 '직제상 협력'에 가까운 의견이 도출되었다는 점에 천착하여, FGI는 실제 '기록관과 도서관의 업무상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FGI는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 내용은 윤은하 외(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면담 대상자의 특성과 FGI 결과지의 개념 범주화 작업을 수행했다. 범주화 과정에서 응답 키워드를 개방 코딩을 통해 검토하였다. <표 14>는 FGI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범주화 작업을 진행한 후 주요 키워드를 산출한 내역을 나타낸 것으로, '서비스, 협력 필요성과 개선 방안'이라는 2개의 상위 범주와 5개의 하위 범주, 9개의 세부 범주로 나뉘었다. F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은 기록관 20개, 도서관 21개이다.

1) 응답 키워드 분석

(1) 서비스

면접 대상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라카이브로서의 협력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을 제시한 결과, 다음의 공통 의견이 수렴되었다 (<표 14> 상단 참조).

기록관과 도서관은 교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각 실무자는 서비스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록관 실무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연속성의 우려를 표했고,

도서관 실무자는 근무 인력이 자연감소하는 것에 반해 인력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14〉 FGI 내용 관련 범주 및 응답 키워드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세부 범주	응답 키워드 (기록관, 면접 대상자 A)	응답 키워드 (도서관, 면접 대상자 B)	공통 응답 키워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주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적 서비스 • 요구 자료 제공 • 교내 부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이용교육 • 행사 • 교수·학습·연구지원 • 교내·외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어려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화 필요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감소 • 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부족
		예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복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서비스 확대 • 전자자료 이용 교육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
	관련 서비스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보존, 폐기, 서비스 등 업무 전반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이용, 폐기, 서비스, 뉴스레터 등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 서비스
협력 필요성과 개선 방안	직제개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봉사 중심 • 행정기록물 + 교사 자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도서관평가 점수 확보 	
	협력의 필요성 (가능성)	협력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하다 • 적극적인 참고봉사 • 인력 부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하다 • 기관 정보 수집 • 정보 서비스, 검색도구 기반 학문연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하다 • 정보 서비스
		협력 가능성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성 있다 • 자격 취득 • 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성 있다 • 인력 감소 • 직제 운영중 • 자격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성 있다 • 인력 부족 • 자격 취득
	업무 개선 방안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공간 • 인력배치 •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배치 •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인력 배정
		향후 제공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의 자격 취득 • 기록물의 검색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검색점 확대 • 보유 기록물 안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검색점 확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과 도서관 실무자 공히 ‘연구자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라카이브로서 기록관과 도서관의 업무 유사성에 대해 ‘자료를 관리·보존·폐기·서비스한다는 점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응답을 제시했다. 일례로 현재 W대학교의 경우 기록관과 도서관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어 ‘라카이브로서의 업무 협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응답도 함께 제시되었다.

(2) 협력 필요성과 개선 방안

현재 라카이브 형태로 협력을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필요성과 실무자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4〉 하단 참조).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기록관과 도서관 실무자는 모두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용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라카이브로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양 조직의 실무자는 ‘적극적인 관련 자격 취득을 통한 인력 부족 개선’이 우선되어야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후 질문인 ‘향후 업무 개선 방안’ 역시 공통 응답으로서 제시된 ‘인력 부족의 문제 개선’과 비슷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라카이브로서 협력해나가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기록물의 검색점 확대’가 공통 의견으로서 제시되었고, 위의 ‘조직의 향후 제공 예정 서비스’ 역시 공통 응답으로 제시된 ‘연구자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2) FGI 분석 결과

본 FGI는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기록관과 도서관 실무자의 긍정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업무상 협력의 측면에서 실무자의 현실적인 고충과 제안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협력’의 관점에서 기록관과 도서관이 실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3장의 ‘라카이브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물적 협력’과는 다른 관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었다.

상기 FGI를 통해 수렴된 기록관과 도서관의 실무자가 생각하는 상호 조직의 협력 필요성과 향후 라카이브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의 인력 감소를 대비하여 직제 개편과 관련 자격 취득(기록물관리전문요원, 사서)이 필요하며, 라카이브로서 업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 배정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검색점을 확대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를 위한 발전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라카이브 형태의 조직 협력을 위한 실무 운영 방안

이번 장에서는 3장의 라카이브 인식 조사와 4장의 FG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고유 역할인 ‘교수·학습·연구지원’을 위한 라카이브 실무 운영 방안을 <표 15>와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한다.

〈표 15〉 라카이브 형태의 조직 협력을 위한 실무 운영 방안

키워드	실무 운영 방안	효과
교수 학습 지원	기록관·도서관 통합 이용 교육 지원	라카이브 인지도 상승
	학과 전담 서비스 확대 지원	라카이브에 대한 인식 개선
연구지원 서비스	기록관 정보의 검색점 확대(전산화), 업무 창구 일원화	연구자의 요청에 대한 일관성 있는 통합 서비스 제공 가능 자료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률 증대
큐레이션 서비스	전시 공간 일원화 및 협력 전시 프로그램 운영 관련 행사 참여 협조	공간 부족 문제 해결 가능 행사 참여를 통한 소장 자료 홍보
교사 자료 수집 및 관리	교사 자료 수집 및 관리 시 중복 업무 최소화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증대 보존 공간 효율화
평가 협조	라카이브로서 평가 항목에 대한 협조(공간, 인력, 이용자 서비스 등)	평가 수행 효율 증대 실적 상호 보완

첫째, 라카이브로서의 업무 협력을 기반으로 ‘교수·학습 지원’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라카이브 통합 이용 교육’과 ‘학과 전담 서비스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과 도서관의 이용 교육을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라카이브 이용 교육’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라카이브로서 보다 심층적인 ‘학과전담 서비스’를 통해 각 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과 장서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안내하며, 관련 교육과 평가자료 협조 등의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는 라카이브의 인지도를 높이고, 라카이브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구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기록관 정보의 접근점을 확대’하고, ‘검색 창구의 일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카이브로서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기록관과 도서관의 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정보 검색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기록물, 행정 박물의 전산화를 수행해야 한다. 대학 기록관 중 운영 인력과 지원 예산에 따라 온라인 검색이 이

루어질 수 있는 접근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검색 접근점을 확대함과 동시에 교내·외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업무 창구도 함께 일원화하여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라카이브를 통한 연구지원 서비스의 확대는 연구자에게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료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률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라카이브로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대학 중 특정 학문 분야에 전문성을 띠고 특화 자료를 다수 보유한 기관은 관련된 행정박물, 장서 등을 소개하는 전시를 기록관 또는 도서관의 전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심층적인 학습을 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기록관과 도서관이 운영하는 행사에 두 조직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부스를 운영하고, 투어와 체험활동을 추가한 이용 교육을 진행하여 라카이브로서의 협력 운영에 대한 홍보와 복합적인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전시 공간의 일원화를 통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행사 참여를 통해 소장 자료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내에서 생산되어 대학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 즉 교사(校史) 자료 수집과 간행물의 납본 과정에서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록관과 도서관은 대학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물을 기증을 통해 수집하고 교내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납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자료의 수집’이라는 공통된 업무를 두 조직에서 개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학의 특화된 문화와 역사가 담긴 기록물을 수집할 때 도서관은 학술 활동과 관련된 도서 형태의 간행물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기록관은 도서 형태 외의 교사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발간되는 사료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중복 기록물 수집의 최소화를 통해 보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대학의 기록관과 도서관은 평가 업무에서도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내·외에서 매해 실시되는 다양한 평가에 대해 라카이브로서 평가 항목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록관과 도서관이 '직제상 협력'하는 경우 '전담 인력 운영'과 관련된 평가 항목에서 협조할 수 있다. 기록관과 도서관이 '업무상 협력'하는 경우, '이용자 서비스' 항목과 관련된 교육, 참고 봉사, 기록(원문) 열람 및 복사 서비스 등에서의 협력을 수행하고, 이를 평가의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기록관과 도서관이 적은 인력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공간 또는 인력 부분에서의 평가 실적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직의 협력을 의미하는 '라카이브'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서 출발해 기록관과 도서관이 협력하여 운영 중인 대학 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라카이브'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과 기록관, 도서관 실무자 양측의 관점에서 '적합한 업무 협력 형태'를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인식 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학 기록관과 도서관의 실무자는 라카이브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해당 유형의 협력 모델이 향후 기관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 협력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라카이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

를 대상으로 진행한 FGI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라카이브의 협력 형태로 기록관과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W대학교의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자료의 관리/보존/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장서(기록) 관리의 관점에서 기록관과 도서관 업무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기록관과 도서관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라카이브'이며, 향후 라카이브로서의 협력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검색점 확대'를 통해 온라인 라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라카이브'로서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은 궁극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지향한다. 실무자 심층면담을 통해 라카이브 형태의 조직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인력 충원', '공간 확보' 등 기록관과 도서관이 직면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은 이용자의 '교수·학습·연구지원'을 제공한다는 그 고유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라카이브로서 발돋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하여 라카이브 통합 이용교육을 지원하고, 소장자료를 활용하여 학과전담 서비스를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에게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기록관 정보의 검색점을 확대하고, 이용자 서비스 지원을 위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큐레이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라카이브로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화 자료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대학에서 교사 자료를 수집하거나 간행물의 납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라카이브로서 업무 협조를 기반으로 평가 대상 항목에서 필요시 협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록관과 도서관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국내 일부 대학을

선정하여 설문 조사 및 FGI를 수행했다. 대학 내 소장 자료나 연구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고, 향후 ‘라카이브’ 혹은 ‘라키비움’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특정 대학이나 지역에만 국한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를 구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길 소망한다.

향후 대학 기록관과 도서관이 직제상·업무상 협력을 위해 논의할 경우, 본 연구에서 수렴된 실무자의 의견과 방안들이 해당 기관의 조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학술지〉

- 강구민 (2019). 기록관 중심의 라키비움 설립: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2), 250-256.
- 김미연, 정옥경 (2017). 공공도서관 사서의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 연구: 인천광역시 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1), 77-112.
- 김민경, 이성신 (2014).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공간 협력 방안.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7(1), 1-24.
- 배성중, 배삼열, 김용 (2014). 소규모 대학교에서의 라키비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63-97.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4.063>
- 서혜란 (2005).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5-41.
- 신현대 (2015). ARUW 세계대학평가기제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연구. 국정관리연구, 10(3), 67-87.
- 윤은하, 배삼열, 심갑용, 김용 (2012).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학술 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265-29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4.25.1.265>

최영실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복합 기능을 구현한 라키비움의 공간 기능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2(2), 53-80.

최영실, 이해영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57-477.

〈학위논문〉

김지영 (2012).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록관·도서관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노경국 (2018). 대학기록관의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안지혜 (2018). 라키비움 서비스에 관한 사서인식 연구: 국회도서관 구성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민철 (2022). 대학 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대학기록관 활성화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장미경 (2016). 증규모 대학교 도서관의 라키비움 구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연구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의 미래전략 및 서비스 모형 구축 연구 (11-1371029-000156-01).

〈전자자원〉

Cent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Leiden University, The Netherlands (2022). CWTS Leiden Ranking 2022. CWTS Leiden Ranking. 출처: <https://www.leidenranking.com/>